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오전에 '한미 통상 관계 전망'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물가 부담에 미 근로자들 푸드 뱅크 이용

[미국 금융]
- WSJ: 국채보다 주식 보유의 추가 이득은 사라졌다
- FinanceYahoo: 중국의 DeepSeek가 뭐길래 인공지능 세계 흔드나?
- CNNBusiness: 세금 보고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트럼프 행정부]
- WSJ: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미국만' 밝은 전망
- Bloomberg: 트럼프, 콜롬비아 25% 관세 철회… 이민자 건 합의
- CNBC: 트럼프 관세가 랩탑, 스마트폰, AI 물가 상승 줄 수 있어

[물류]
- WSJ: 후티 반군, 홍해 상선 공격 중단… 여전히 불안

[주택]
- NYT: 2024년 기존 주택 판매, 수십 년 만에 가장 저조

[인공지능]
- WSJ: 실리콘 밸리, 중국 AI 모델 극찬

[오일]
- Bloomberg: 씨티그룹 "트럼프, 에너지 전환 막지 못할 것"

[글로벌 경제]
- Bloomberg: 비틀거리는 중국 경제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Levi, 기술의 도움으로 패션 유행 파악
- WSJ: 타겟, 다양성 정책과 흑인 지원 프로그램 끝내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Working Americans Turn to Food Banks as Fed Inflation Battle Drags On
물가 부담에 미 근로자들 푸드 뱅크 이용

- 물가가 수년간 부담을 주면서 저소득층에게 식품 등 나누어주는 비영리 단체의 수요가 급증했다. 식료품 물가는 지난 5년간 거의 28% 늘어났다.

- 애리조나의 푸트 뱅크인 Flagstaff Family Food Center는 현재 매달 40만 건의 끼니를 제공하고 있다.

- 워싱턴에 소재한 푸드 뱅크 Capital Area Food Bank도 작년 회계 연도에 6천6백만건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전년도보다 5백만건 더 많았다.
- 이들 푸드 뱅크는 식료품 체인이나 다른 관련 공급 업체들로부터 식품을 제공받아 식품 저장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음식을 배분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The Extra Reward for Owning Stocks Over Bonds Has Disappeared
국채보다 주식 보유의 추가 이득은 사라졌다

-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은 S&P500 수익률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차이점으로 정의하는데, 지난 12월 하반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지난주에 마이너스 0.15%를 기록했다.
- 최근 수 주 동안 높은 국제 수익률과 치솟는 주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영역에 들었다. 이는 최근의 증시 랠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2년간의 블록버스터급 성장에 주가 상승 기대감을 갖고 있어 위축된 수요는 보이지 않고 있다.

WSJ 기사

FinanceYahoo: What Is China's DeepSeek and Why Is It Freaking Out the AI World?
중국의 DeepSeek가 뭐길래 인공지능 세계 흔드나?

- 설립한 지 거의 1년밖에 되지 않은 중국의 AI 스타트 회사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세계의 우수한 챗봇과 비교될 정도로 놀라운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여 실리콘 밸리를 흔들고 있다.
- 이 같은 출현은 앞으로 AI는 엄청난 전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AI 주식들은 출렁거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기업의 출현이 미국의 경쟁 업체들과 관련 하드웨어 회사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 이 회사의 AI 모델은 오픈 소스로 개발업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연구해 발전시킬 수 있다. 1월 초에 모바일 앱이 출시된 후에 아아폰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되고 있는 앱이다.
- OpenAI의 챗봇과 차별화되는 점은 프롬프트(명령어)에 반응하기 전에 추론을 계산한다는 점이다. 또 이 회사의 DeepSeek R1 이 OpenAI의 최근 성능과 맞먹으며, 이 기술을 이용하여 챗봇을 개발하려는 이들에게 라이센스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 이 프로그램은 개발 비용이 매우 낮아 엔비디아와 같은 강력한 AI 가속기 개발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지 의문을 들게 할 정도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FinanceYahoo 기사

CNNBusiness: Welcome to tax season. What to know before you file
세금 보고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 미 국세청 세금 보고는 4월 15일이 마감이다. LA 등 재난지역은 연기될 수 있다.
- 그리고 보고는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는 2024년 세금 보고를 연장하는 것이지 납부해야할 금액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에 2024년 과세 연도에 세금을 내야 할 경우 여전히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 뉴욕과 뉴저지 등 25개 주의 경우 세금 신고를 무료로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IRS Direct File program이다.

CNNBusiness 기사

[트럼프 행정부]

WSJ: Trump's Arrival Brightens U.S. Outlook, Darkens Everyone Else's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미국만' 밝은 전망

-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 경제는 성장하고.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며. 기업 간에 대형 합병이 일어날 수 있다.
-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위협과 보호주의적인 입장은 다른 국가들, 특히 유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지역은 이미 경제적인 내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 특히 이 같은 미국과 다른 지역 간의 격차는 미국의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의 통화를 약화시키고 있어 그들이 금리를 내리기 힘든 금융 압박을 줄 수 있다.

WSJ 기사

Bloomberg: Trump to Hold Off on 25% Colombia Tariffs, Reaches Deal on Migrants
트럼프, 콜롬비아 25% 관세 철회… 이민자 건 합의

- 미국과 콜롬비아가 미국에서 추방된 콜롬비아인들의 본국 송환에 합의하면서 트럼프가 콜롬비아 25% 관세 부과 명령을 철회했다.

- 백악관은 어제 일요일 밤늦게 “콜롬비아 정부는 지체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조건을 다 수용했다.”라고 말했다. 수용 조건은 미 군용기를 이용한 추방자들의 입국 수용 등이다.

- 당초 콜롬비아 대통령은 추방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미 군용기 두대로 추방자들은 콜롬비아에 입국시키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었다.

Bloomberg 기사

CNBC: Trump tariffs could raise prices on technology like laptops, smartphones and AI
트럼프 관세가 랩탑, 스마트폰, AI 물가 상승 줄 수 있어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이 이번 주에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이들 회사의 비즈니스 품목에 영향을 주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 대중국 60% 관세 부과 시 랩탑과 태블릿 가격은 45%, 비디오 게임 콘솔은 40%, 스마트폰은 26% 가격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트럼프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조치를 2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CNBC 기사

[물류]

WSJ: Shippers Wary of Red Sea Routes Despite Houthi Pledge to End Targeting
후티 반군, 홍해 상선 공격 중단… 여전히 불안

-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가자지구 휴전이 유지되는 한 더 이상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그러나 여전히 대형 해운사들은 홍해로 선박을 보내지 않고 있다. 세계 3대 컨테이너 선사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과 불확실성 때문에 다른 노선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 후티 반군은 지난 1년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홍해 상선들을 공격했다. 따라서 선박들은 아프리카 남쪽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항로를 이용해야 했다. 이 루트는 항해 시간이 2주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글로벌 운임료가 상승했다.

- 홍해 터미널을 관리하는 아랍에미리트 회사 DP World의 부사장 Yuvraj Narayan은 “휴전이 유지되어 홍해 항로가 되살아나면 화물 가격이 20~25% 떨어질 수 있다. 사고가 없다면 이는 시간문제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주택]

NYT: Existing-Home Sales in 2024 Were Slowest in Decades
2024년 기존 주택 판매, 수십 년 만에 가장 저조

- 전미 부동산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는 작년 기존 주택 판매가 400만 채로 1995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연간 약 500만 채의 기존 주택이 판매됐었다.
- 높은 가격과 약 7% 이상 증가한 모기지 금리 때문에 작년 미국 주택 시장은 얼어붙었다. 향후 몇 달간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웰스파고 이코노미스트 Charlie Dougherty는 올해 주택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점차 주택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신호가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더 많은 소유주가 주택을 판매할 생각이며, 매물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간다. 실제로 2024년 12월 주택 판매량은 2023년 12월보다 9.3% 증가했다.

NYT 기사

[인공지능]

WSJ: Silicon Valley Is Raving About a Made-in-China AI Model
실리콘 밸리, 중국 AI 모델 극찬

- 오늘 미국 금융 기사에서 말했듯이 중국의 한 AI 회사가 저렴한 구형 반도체로 고급 반도체를 사용하는 미국 회사들과 거의 비슷한 성능의 AI 모델 딥시크(DeepSeek)를 만들어냈다. 실리콘 밸리의 벤처 투자자 Marc Andereessen은 놀라운 혁신이라고 말했다.
- 저렴한 구형 반도체로도 놀라운 성능을 보여준 딥시크 때문에 AI 인프라에 대한 미국 빅테크의 막대한 지출이 낭비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때문에 월요일 초 기술 중심 나스닥이 3%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10% 이상 하락했다.
- 전문가들은 딥시크가 아직 OpenAI와 구글에 비하면 기술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딥시크는 저렴한 구형 반도체를 사용하는 점, 더 적은 수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점, 미국 개발자들이 필수라고 여기는 여러 단계를 건너뛰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다.

WSJ 기사

[오일]

Bloomberg: Citi Analysts Say Trump Can’t Reverse Energy Transition
씨티그룹 “트럼프, 에너지 전환 막지 못할 것”

- 씨티그룹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전통적인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됐으며, 더 저렴하게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트럼프는 1월 20일 취임 첫날 파리 기후 협약 탈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여러 친환경 정책 폐지, 화석 연료 추출을 허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 하지만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는 유럽, 중앙아시아, 지중해 지역은 여전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자금 수요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즉,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흐름이 유의미하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China's Economy Stumbles in Sign Rebound Hinges on More Stimulus
비틀거리는 중국 경제

- 중국 경제가 비틀거리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 부양책 이후 보였던 회복 모멘텀은 사라졌다.

- 1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49.1로 작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 및 서비스 비제조업 지수는 50.2로 하락했다. 중국 CSI 300 지수는 0.4% 하락했다. 중국 30년 만기 국채 선물은 0.7% 상승했다. 위안화는 약 0.4% 하락했다.

- 이는 작년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Union Bancaire Privee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 Carlos Casnova는 중국 정부가 통화 및 재정 정책 측면에서 더 많이 지출하지 않으면, 중국은 2025년 경기 둔화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How Tech Helped Levi's Ride the 'Baggy Jeans' Trend
Levi, 기술의 도움으로 패션 유행 파악

- 최근 배기 핏 청바지가 유행했다. 배기 핏은 배기통처럼 허벅지 부분이 여유 있고 아래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디자인의 바지 스타일이다. 1950년대부터 청바지를 만든 Levi Strauss는 인공지능 기술로 이 유행을 빠르게 파악해 이득을 봤다.

- Levi는 고객들의 구매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10개 국가에 청바지를 판매하는 기업인만큼 구매 데이터가 규모와 기술이 서로

다른 다양한 파트너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2020년부터 구글 클라우드와 계약을 맺고 데이터를 수집해 유행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실행한 이후 더 쉽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빠르게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WSJ 기사

WSJ: Target Drops DEI Goals and Ends Program to Boost Black Suppliers
타겟, 다양성 정책과 흑인 지원 프로그램 끝내

-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타겟은 2025년까지 회사의 흑인 직원의 비율을 20%까지 늘리고, 흑인 소유 기업에 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타겟은 오랜 시간 친 흑인, 친 소수자 성향의 기업이었다.

-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타겟은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유지한 다양성 정책과 흑인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다양성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었다.

- 타겟은 최근 매출 부진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타겟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회사인 Brown Toy Box의 설립자 Terri-Nechelle Bradley는 “실망스러운 일이다. 다양성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보고서]

WB, 올 세계 경제성장률 2.7%…"트럼프 보편관세시 0.3%p 감소"
세계은행 경제전망…"'트럼프 감세' 연장시 내년 美 경제성장률 0.4%p 증가"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2.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들이 맞대응에 나설 경우 전망치보다 0.3%포인트가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은행(WB)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경제는 2023 년과 마찬가지로 2.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또 올해와 내년의 세계 경제가 각각 2.7%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